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러시아센터-홋카이도대학교 슬라브연구센터 제9차 공동심포지엄: “Otherness in Russian and Eurasian Contexts.”

지난 2017년 1월 30일(월), 서울대 러시아센터는 서울대 러시아연구소, 홋카이도대학교 슬라브연구센터와 공동주최로,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러시아연구소 - 홋카이도대학교 슬라브연구센터 제9차 공동심포지엄”을 “Otherness in Russian and Eurasian Contexts”라는 주제로 홋카이도대학교 슬라브-유라시아연구센터 403호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대학원생 발표자들을 위한 첫 번째 세션은 김연이의 발표 “A Study of Nabokov’s Triadic List”로 시작되었다. 김연이는 나보코프의 “피알타의 봄(Весна в Фиальте)”, “울티마 툴레(Ultima Thule)”, “구름, 호수, 성탑(Облако, Озера, Башня)”을 분석하면서, 이 작품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세 가지 사소한 사물들의 갑작스러운 연합에 대해 다루었다. 이러한 세 가지 사물들의 연합을 “Triadic List/троичный список”라는 용어로 지칭하면서, 그것이 무엇보다 나보코프의 작품 속에서 기억의 문제와 관련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발표자는 “피알타의 봄”과 “구름, 호수, 성탑”에서 주인공들이 Троичный список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억 속의 사물들을 한 지점에 모을 수 있는 능력 덕분임을 강조하면서, 나보코프가 이러한 능력을 시인에게 고유의 능력인, “우주적 동기화”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김연이에 의하면 위의 두 작품에서와는 다르게 “울티마 툴레”에서 주인공은 Троичный список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 까닭은 그러한 우주적 동기화의 경험을 논리적인 언어를 도구로 추적하려 했기 때문이다. 결국 Троичный список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인의 초월적 경험을 작품 속에 물질화시키는 나보코프 고유의 장치였던 것이다.

이어서 황철현은 “러시아어 차용어 수용의 의미적 분석: 러시아어 접미사 -чик, -щик, -ник, -ик의 사례(A Semantic Analysis of Loanword Adaptation in Russian: A Case of Russian suffixes -čik, -ščik, -nik, -ik)”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러시아어 접미사 선택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어의 접미사 선택의 문제는 사전학적 어휘론의 측면에서 기술되어 왔다. 접미사가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의미의 기술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접미사 의미에 대한 다의적인(polysemous) 접근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특정 접미사가 선택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다만 접미사 선택 이후에 드러나는 의미만을 설명해준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에 반하여 Edna Andrews(1996)는 접미사 의미를 다른 접미사와의 관계에 바탕하여 단의적인(monosemous)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는 접미사 선택의 이유를 접미사의 단의적 의미에 바탕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접미사의 다양한 의미망을 지나치게 추상화 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황철현은 해당 연구에서 인지언어학적 방법론인 원형범주 이론(prototype theory)과 방사 범주(radial category), 그리고 코퍼스자료와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러시아어 접미사가 외래어에 적용되어 외래어가 러시아어 체계에 수용되는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러시아어 접미사의 의미망과 그 작동원리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연구소·러시아센터

Institute for Russian, East European & Eurasian Studies

РУССКИЙ ЦЕНТР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뒤이어 정태종은 “나타샤: 『세 자매』에서 그녀는 타자인가?(Natasha: Is She 'the Other' in the Chekhov's Play The Three Sisters?)”라는 제목으로 체호프의 희곡 『세 자매』에서 나타샤가 프로조로프 가문 인물들에게 단순한 타자인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발표자는 나타샤를 ‘부모’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그녀가 아버지 프로조로프와 어머니 프로조로바의 패러디적 분신이라고 주장한다. 나타샤는 작품 속에서 자신의 아이들과 집안의 질서에 강한 집착을 보이며 이는 자식들의 말 속에서 유추되는 아버지 프로조로프의 성향과 유사하다. 또한 어머니 프로조로바와 체부티킨 사이에서 암시되는 불륜 관계는 나타샤와 프로토포포프의 경우로 과장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나타샤는 부모 프로조로프가 부재한 무대 위에서 두 인물의 부정적인 속성을 그로테스크한 형태로 현현하고 있는 패러디적 분신이다. 이러한 사실은 체호프가 나타샤라는 캐릭터를 자신의 극작술의 일환으로 설정했음을 유추하게 해주며, 나타샤를 작품 속에서 단순한 타자로 설정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이를 근거로 발표자는 나타샤가 프로조로프 가문의 인물들에게 타자임에는 분명하지만 자신들의 부모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익숙한 타자임을 주장한다.



첫 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자인 IKUMA Genichi는 “Вещи как чужие? Дыхательные упражнения в произведениях А. В. Монастырского и группы <Коллективные действия>(Objects as Others? Breathing Exercises in Works of A. V. Monastyrsky and the Collective Actions Group)”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해당 논문에서 IKUMA는 모스크바 개념주의 예술의 두 번째 세대가 첫 번째 세대와 사물을 대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탐구했다. 이를 모스크바 개념주의의 두 번째 세대이자 “Коллективные действия”에 속해있는 Монастырский의 호홉 작품들에 집중하여 규명했다. 모스크바 개념주의에서 사물은 원래 자유로운 해석과 상충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Монастырский와 КД는 낯선 사물과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했고 이는 Монастырский의 호홉 행위를 대상으로 삼는 초기 작품에서 “낯선 것으로서의 대상(вещи как чужое)”이라는 주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는데, 80년대에 나온 “Звуковые перспективы Поездки за город”에서는 호홉이 그것을 질료로 하는 소리와 연기와 함께 제시되면서 호홉 행위가 미적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낯선 것으로서의 대상”과의 관계가 개념주의의 형이상학적인 성격과 맞닿아 있음을, 그리고 모스크바 개념주의의 독자적인 발전 양상을 보여준



다.

두 번째 세션은 이선우 박사의 발표, “중국과 러시아 간 대(對)한반도 전략의 입장 차이와 이것이 한국 외교에 가지는 함의(A Subtle Difference between Russia and China's Stances toward Korean Peninsula)”로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 이선우 박사는 동북아의 변화 속에서 ‘신냉전’의 한 축으로 자연스럽게 간주되어 온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전략적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것이 한국에 가지는 전략적 함의를 재평가했다. 특히 러시아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단기·중기·장기적 이해에 초점을 맞춰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미중 간 치열한 갈등의 시대에 러시아가 일종의 새로운 균형자로 부상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돌파구가 될 가능성을 타진했다. 사실 러시아는 그동안 중국에 비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했던 탓에 북핵 등 안보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의 기대를 크게 받지 못해 왔으나 THAAD 배치 결정과 이로 인한 미중 간의 대결 구도 심화로 인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일부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이에 발표자는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한국과도 더 쉽게 협력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까지 점하고 있어 오히려 한국 외교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서 KIKUTA Haruka 교수는 “Four Types of Migrants from Uzbekistan to Russia: Specifying Sources of ‘otherness’”를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 발표자는 인류학적 접근으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이민자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네 가지 유형을 네 가지 요소들의 다른 조합으로 성격화하면서 러시아 사회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타자성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는지 보여주었다. 발표자가 우즈베키스탄 이민자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도시/시골, 엘리트/비엘리트이다. 따라서 분류되는 네 유형은 1) 도시의 엘리트 이민자, 2) 도시의 비엘리트 이민자, 3) 시골의 엘리트 이민자, 4) 시골의 비엘리트 이민자이다. 그리고 발표자는 이민자들이 보여주는 타자성의 요소를 네 가지, 즉 외모, 사회적 지위, 언어, 관습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타자성의 네 요소는 도시나 시골에 상관없이 비엘리트 이민자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이들이 러시아 사회에 엘리트 집단보다 더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발표자는 러시아의 이민자 집단에 대한 법적 문제의 정교화와 관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 제도의 구성 등을 해결 과제로서 제시한다.

세 번째 세션은 조규연 박사의 “러시아 미래주의 책과 마야콥스키의 책 시학(Russian Futurists Book and Mayakovsky's Book Poetics)”으로 시작되었다. 마야콥스키의 창작 과정은 미래주의로부터 혁명 이후 구축주의에 이르는 1910-20년대 러시아 예술 흐름의 유기적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책’이란 새로운 예술과 일상적 삶을 투영하는 대표적인 종합주의 예술 매체이자 또 하나의 새로운 시적 장르였다. 본 발표에서는 미래주의 선언문에 제시된 이론과 시적 지향이 실제 책의 형식에 어떻게 상응하는지를 밝히고, 미래주의 시기 마야콥스키의 책이 지니는 시적 특수성을 시와 회화의 상호텍스트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당대 예술가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출판된 책(시집) <나>(1913)와 <오늘날의 루복>(1914)을 중심으로 마야콥스키 시학에서의 ‘전통과 새로움’, ‘시와 회화’, ‘미학과 기능’ 그리고 ‘예술과 삶’이라는 다양한 경계의 문제를



러시아연구소·러시아센터

Institute for Russian, East European & Eurasian Studies

РУССКИЙ ЦЕНТР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발표자에 따르면 이는 구축주의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책’을 제작하고 나아가 ‘확대된 책’으로서의 포스터와 광고 작업에 종사했던 1920년대 창작의 토대로 작용한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음 발표자인 KAMITAKE Keiko는 “Sergei Prokofiev's Impact on Japanese Music”을 발표하였다.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Сергей Прокофьев)는 후대의 작곡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의 가장 유명한 클래식 및 영화 음악 작곡가 중 하나인 아키라 이푸쿠베(Akira Ifukube)도 그 중 하나이다. 그의 초기 영화음악은 특히 프로코피에프가 작곡한 에이젠슈타인의 <이반 뇌제>의 영화 음악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도쿄 음악 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도 한 아키라 이푸쿠베는 프로코피에프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쇼스타코비치나 스트라빈스키와 같은 러시아 작곡가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그는 음악 잡지에 프로코피에프 음악의 중요 요소들을 다루는 글들을 쓰기도 하였다. Kamitake 교수는 이푸쿠베와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야스시 아쿠타가와(Yasushi Akutagawa)의 작품들과 관점을 분석하며, 프로코피에프가 그들의 작품에 미친 영향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세션에서 변현태 교수는 “유물론적 미학을 향하여: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진화(Toward Materialistic Esthetics: Evolution of Russian Avant-garde)”에 대해 발표하였다. 해당 논문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전후로 한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진화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러시아 아방가르드란 미래주의(큐보 푸투리즘), 절대주의, 구축주의, 생산주의, 레프, 신레프 등 다양한 당대의 이질적인 예술적 경향을 총칭한다. 발표자는 혁명 이전에 만들어졌던 경향들이 혁명 이후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추적하였다. 발표자가 제시하는 이 추적의 기동점은, 이들과 동시대인들이었던 독일의 미학자 벤야민의 ‘유물론적 미학’이다. 벤야민은 저 유명한 ‘정치적 미학화’, ‘예술의 정치화’를 통해 파시즘의 미학이 ‘정치적 미학화’로 귀결되고, 그에 대해 공산주의의 ‘예술의 정치화’를 모색한 바 있다. 벤야민은 ‘예술의 정치화’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했지만 러시아 아방가르드 2기(2차 미래주의)는 이를 고민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고민 하에, 본 발표에서 발표자는 혁명을 전후로 한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진화의 몇몇 지점을 고찰한다.



마지막 발표자인 ALEXANDROVA Elmira 교수는 “An Evening with Claire by Gaito Gazdanovasa Novel-Reminiscence: from Commentaries on Certain Images of Acoustic Memory”에 대해 발표하였다. 현대작가 가이토 가즈다노바(Гайто Газданова)의 작품 “Вечер у Клэр(An Evening with Claire)”는 슈제트가 없다는 점(бессюжетность), 그리고 주인공-화자의 기억으로 서로 연관된 에피소드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발표자는 이러한 에피소드들을 연결하는 요소로 여태까지 가즈다노바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던 청각적 기억을 제시했다. 그에 의하면 소설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청각적 기억의 요소는 풍자로서 기능하는 모래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땅의 진동하는 둔탁한 소리의 자기회상(автореминисценция)이고, 두 번째 자기회상의 형상은 전자와 대칭점을 이루는 창조의 시작이다. 이러한 낯은 것의 붕괴-새로운 것의 창조간의 대조는 그의 작품에서 명시적 수준에서만 아니라 암시적, 무의식적 수준에서도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상은 민중의 노래로써 나타나는데, 이 노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함, 조국 밖에서의 죽음과 같은 테마를 다루며, 또한 가즈다노바에 의해 작품에서 점차 발전해가는 우연과 법칙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